

# 사회적 자본 및 도시특성이 기초자치단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Analysis of Influences of Social Capital and Urban Characteristics on Competitiveness of Local Governments

권연화 Kwon Yeonhwa\*\*, 최열 Choi Yeol\*\*\*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social capital and urban characteristics on competitiveness of local governments. The data from all local governments in Korea is used for the analysis. Independent variables are social capital characteristic(such as participation, network, norms, knowledge activity and diversity) and urban characteristics (such as the ratio of aged population, the ratio of manufacturing industry, land use, cultural service and roadway length).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consideration of the social capital, the effect of knowledge activity and diversity variables on competitiveness of local governments is very large. Social capital variables(knowledge activities, diversity, norms and private participation) and urban characteristic variables(the elderly, manufacture, residential area, commercial area, roadway length) are significant when considering both of them at the same time. The importance of social capital in improving competitiveness of local governments has been recognized and it will help to plan ways to promote urban growth and development.

Keywords: Social Capital, Urban Characteristics, Competitiveness of Local Governments, Multiple Regression Model

### I. 서론

세계화, 국제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경쟁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으며,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 시간적, 공간적으로 더욱 좁혀진 국가 간의 거리로 인해 지역 또는 도시 간의 경쟁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게다가 도시를 통한 경쟁력의 확보가 곧 국가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시경제와 사회가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자본이 필요하다. 도로, 항만, 철도와 같은 물리적 자본과 전문가, 기술자, 근로자 등과 같은 인적 자본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회구성원 간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 등이 풍부해

\* 본 논문은 2016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B5A07919390).

\*\* 부산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연구원(제1저자) | Researcher, Urban Affairs Research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 | Primary Author  
| toadl21@daum.net

\*\*\*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교신저자) | Prof., Dept. of Urban Planning and Engineering, Pusan National Univ. | Corresponding Author  
| yeolchoi@pusan.ac.kr

야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이동원, 정갑영, 채승병, 박준 외 2009). 그리고 법질서, 신뢰, 네트워크, 지식기반환경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자본은 경제성장에 있어서 물질 자본에 비해 더 중요한 요소이며(Putnam 1993), 개별 국가가 부(富)를 창출함에 있어서 그 기여도가 높고(송태수 2011), 도시의 경쟁력 강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하였다(김정호 2008). 이렇듯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생산성, 경쟁력, 도시재생 등과 관련성이 높은 사회적 자본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도시공간에 형성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무형자산인 사회적 자본과 유형자산인 도시의 물리적 특성이 도시경쟁력과 맺고 있는 관계와 그 영향력을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도시)를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도시경쟁력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보다 분명하게 함으로써 도시발전, 도시재생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II.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자본(Capital)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생산요소와 결합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물질 자본이나 인적 자본처럼 특정한 주체가 통제할 수 있는 자원의 집합을 말한다. 그러나 물질·인적 자본 외에도 사회적·문화적·정치적 자본처럼 사회의 특성과 제도에 따라 형성되는 자원들도 물질·인적 자본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적 자본의 개념은 Tocqueville(2003)이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공동의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 서로 결속하는 미국사회의 경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으며, Hanifan(1916)에 의해 사회적 자본주의(Social Capital)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되었다(이동원, 정갑영, 채승병, 박준 외 2009, 재인용). 그 이후에 Coleman(1990), Putnam(1993), Fukuyama(1995) 등에 의해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Coleman(1990)은 사회구조의 한 측면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자본은 구조 내에 있는 개인의 특정행동을 촉진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하고, 모든 사회집단이 이용할 수 있는 잠재적인 자원이라고 하였다. Putnam(1993)은 개인들의 결합을 통해서 생겨난 사회적 자본은 하나의 사회조직적 특성이며, 사회적 자본이 강한 지역사회와 지방정부(국가)는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며, 시민의 요구에도 신속히 대응한다고 하였다. Fukuyama(1995)는 사회적 자본을 지역사회에서 신뢰가 충만할 때 발휘되는 지역사회의 능력으로 보았으며, 사회적 자본이 사회의 효율성과 경제적 번영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다양한 연구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나 집단 간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무형의 자산으로 실제적인 의미와 기능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Van Deth 2008).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는 크게 신뢰, 규범, 네트워크, 참여 등을 들 수 있는데, 신뢰(Trust)는 상대방을 믿고 의지한다는 의미로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요소이다. 규범(Norms)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가치에 따라 행동하도록 구성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네트워크(Network)는 사람 혹은 사회조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관계의 묶음을 나타낸다. 참여(Participation)는 자발성과 적극성에 기초한 것으로 사적참여와 공적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박영강, 윤은기, 이희태, 초의수 외 2014).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는 연구자에 따라 네트워크, 규범, 신뢰,

참여, 호혜성, 집단협력, 개방성, 지식기반 활동 등 다양하게 나누어지며 그 범위도 매우 넓지만, 본 논문에서는 도시의 경쟁력과 관련이 있는 사회적 자본 요소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 2. 도시경쟁력의 개념과 도시특성

세계화·국제화 시대, 개방화·지방화 시대를 거치면서 경제활동 및 경쟁의 중심이 '국가' 단위에서 '지역' 또는 '도시' 단위로 옮겨가고 있다. 이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 모색도 중요하지만, 도시의 성장 발전 및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 또한 중요하게 되었다.

도시경쟁력에 대한 개념은 주로 생산성과 관련된 경제적 지표에 기초한 것이며, 생활·문화 환경, 안전 등의 삶의 질과 관련된 평가를 포함하기도 한다. 이러한 개념에 따라 도시경쟁력과 관련된 연구들은 경제적 성과에 중점을 두고 대도시를 대상으로 도시경쟁력을 비교한 연구(Kitson 2004), 삶의 질 요소를 포함해서 도시경쟁력을 평가한 연구(Robert 1999; 조동성, 임민영 2009), 도시의 물리적 인프라 지표를 중심으로 도시경쟁력을 분석한 연구(김원배, 안형도, 박세훈, 정옥주 외 2007; 권창기, 정현욱, 박선형 2008) 등이 있다.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도시경쟁력은 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생산능력뿐 아니라 삶의 질과 관련된 총체적인 역량으로 절대적인 수준이 아닌 상대적인 우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도시경쟁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자산뿐 아니라 도시의 입지적 자산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데, 각 분야의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야 그 도시의 경쟁력 또한 높아진다고 하였다(김정호 2008). 도시의 입지자산은 도시공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도시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

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도시공간 속에 형성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도시적 특성인 인구특성, 산업특성, 토지이용특성 및 기반시설 관련 특성 등을 중심으로 도시경쟁력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3. 사회적 자본과 도시경쟁력에 관한 선행연구

사회적 자본과 도시경쟁력에 관한 연구는 주로 도시경쟁력을 지역의 경제적·물적 성장으로 파악하고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사회적 자본이 부족할 경우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었으며(Olson 1982), 사회적 자본의 형태에 따라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하였다(Woolcock 1998). 사회활동과 같은 사회적 자본은 북부 이탈리아의 지역발전에 기여하였으며(Putnam 1993), 영국의 경우 사회적 자본의 차이(지식유포, 거래비용, 긍정적 외부효과)가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경제수준 차이로 이어진다고 하였다(Casey 2004). 사회적 자본은 지방자치단체(도시)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으며(Ross and Mirowsky 1999), 지역의 발전과도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있었다(Beugelsdijk and Schaik 2005). 게다가 충분히 축적된 사회적 자본은 도시의 변화와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다(Putnam 2000; 박희봉 2002; Castiglione, Van Deth and Wolleb 2008; 김승남, 안건혁, 김재홍 2011).

사회적 자본(자원봉사 참여, 인구센서스 참여, 사회적 신뢰 등)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정부성과(재정관리, 자본관리, 인적자원, 성과관리, 정보기술 등)에 영향을 미쳤으며(Knack 2002),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과 지방정부의 효과성은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박희봉 2002). 사회적 자본은 규모가 작은 정

부에서도 정부의 재정성과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Coffe and Geys 2005), 신뢰, 네트워크, 제도, 규범 등의 사회적 자본은 지방정부의 외부역량 및 재정역량(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윤두섭, 오승은 2007; 정광호 2010). 사회적 자본은 국민의 신뢰수준을 높여 구성원의 단결을 도모하고, 민간기업의 생산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공공부문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어 최근에는 행복국가를 지향하기 위한 새로운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박영강, 윤은기, 이희태, 초의수 외 2014).

사회적 자본은 도시공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Putnam 2000; Bramley and Power 2009),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 생겨난 무형의 사회적 자본이 도시의 사회·경제적 역동성과 집단의 안정성을 높인다고 하였다(우천식, 김태중 2007). 게다가 도시와 관련된 계획수립과 성과달성에 있어 사회적 자본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계획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시 분야 연구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자원유형 중 하나가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였다(김승남, 안건혁, 김재홍 2011).

최근 국내에서는 공공의 주도하에 있던 계획 및 관련 활동들이 주민참여·주민주도 중심으로 그 형태가 변화하면서 지역사회의 커뮤니티가 중요시되고 있으며, 개인 또는 사회구조 속에서 사람들 사이의 공간에 존재하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머지않아 도시의 성장·발전 및 재생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필수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므로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뿐 아니라 개별 도시에 축적되어 있는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을 파악

하는 것은 의미 있는 과정이다. 도시경쟁력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이 국가 간의 지표를 비교하거나 대도시 지역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다양한 규모와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도시들의 경쟁력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시규모로 인해 소외받는 곳이 없도록 우리나라의 모든 기초자치단체(도시)를 대상으로 도시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 요소와 도시특성 요소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기초자치단체(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도시계획 및 정책적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III. 변수의 구성 및 기초통계량

#### 1. 변수의 구성

도시경쟁력은 경제, 도시기반, 사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측정되는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서 평가되고 있으며(이창현, 김경수, 김울성, 박상필 2013), 경제 분야 지표로는 지역내총생산(GRDP)<sup>1)</sup>, 경제성장률 등의 경제규모와 재정자립도, 1인당 지방세 등의 재정과 실업률, 경제활동인구비율 등의 고용 및 인적자원 부문 등이 있다(임병호, 이재우 2008; 이창현, 김경수, 김울성, 박상필 2013). 일반적으로 도시의 생산수준으로 도시경쟁력을 판단할 경우 GRDP를 주로 활용하나 현재 기초자치단체 수준까지 공식적인 통계가 발표되고 있지 않아서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자료 구득의 한계가 있다. 그로 인해 도시의 경제적 생산성을 나타내는 대

1)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 내에서 새로이 창출되는 최종생산물가치의 합을 말하며, 한 국가의 지역별 경제상황을 파악하고 비교하는 데 주로 이용됨.

안지표를 고려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간접지표 중의 하나가 조세부담액(Tax Burden)으로 나타나는 1인당 지방세를 들 수 있다(권창기, 정현욱, 박선형 2008; 권태형, 박종화 2010). 지방세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도 쉽게 구득할 수 있으며, 다양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sup>2)</sup>. 그런데 지방세 속에는 생산성과 관련되지 않은 세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 지방세를 그대로 도시경쟁력에 대한 대리지표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방세 항목들 중에서 도시의 생산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항목으로 ‘(지방)소득세를 고려하였다(권태형, 박종화 2010). 지방소득세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소득<sup>3)</sup>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지방소득 중 개인소득에 대한 조세항목은 개인의 생산적 활동과 관련성이 깊어 개인 및 도시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1인당 소득세를 활용하였다(권태형, 박종화 2010). 그래서 본 논문에서도 기초자치단체(도시)의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기초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 내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였으며, 시 대상, 군 제외, 인구규모 5만 명 이하 제외)<sup>4)</sup>의 ‘1인당

소득세<sup>5)</sup>’를 종속변수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자본특성으로는 앞에서 논의한 사회적 자본의 보편적 요소인 신뢰, 규범, 참여, 네트워크를 다루고자 하였으나 신뢰는 인간의 내면적 요소로 도시의 일반지표를 통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본 논문에서는 제외하였다. 규범은 경제성장과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Knack and Keefer 1997),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요소로 도덕적인 것에서부터 법적인 것까지 매우 다양하다. 도시단위 연구에서는 주로 규범의 준수와 관련된 요소인 탈세, 부패, 범죄 및 법규위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하는데(이동원, 정갑영, 채승범, 박준 외 2009) 본 논문에서는 범죄발생건수(10만 명당)를 규범 변수로 정하였다.

도시경쟁력 측면에서 네트워크는 ‘하드 네트워크(Hard Network)와 ‘소프트 네트워크(Soft Network)가 중요한데(Malecki 2002), 하드 네트워크는 인터넷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망의 보급이 주요 요소이고, 소프트 네트워크는 망을 통한 정보공유와 연계가 중요

- 2)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관할구역 내의 주민 또는 수익, 기타 특정 행위에 대해 부과·징수하는 조세로, 「지방세 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지방세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자치구)가 있으며, 동법 제8조에 따르면 지방세는 보통세(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와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가 있음.
- 3) 지방소득은 「지방세법」에 따르면 크게 개인소득과 법인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음. 개인소득은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성되며, 법인소득은 사업소득, 청산소득, 양도소득으로 구성됨. 소득의 구성 형태만으로 보면 개인소득과 법인소득 모두 생산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지표인데, 생산과 지역의 일치성 등의 관점에서 볼 때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항목보다는 개인소득에 대한 조세항목이 세부담(Tax Burden)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데 더 유용하다고 하였음(권태형, 박종화 2010). 게다가 법인에 대한 조세는 국세의 한 종류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하지 않으므로 지방세에 포함되지 않음.
- 4)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라 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② 시, 군, 구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시, 군, 구(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의 구) 단위의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였음. 2014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기초자치단체는 228개이며, 시, 군, 구 단위로 자료를 구득한 기초자치단체는 149개였으나 인구규모(5만 명 이하) 등에 따라 조정된 결과 145개의 기초자치단체 자료를 활용하였음.
- 5)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국세에 포함되나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조세임. 국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가에서 부과하는 조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酒稅), 인지세(印紙稅),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고,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세목인 보통세(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와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고,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세는 국가가 과세하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한다고 하였음. 본 논문에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고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지방소득세만을 종속변수로 다루고자 함.

요소이다. 이러한 공유와 연계는 주로 사회복지, 종교, 노조, 정당, 환경단체 등에 대한 참여 등으로 추정하므로(이동원, 정갑영, 채승병, 박준 외 2009) 본 논문에서는 개별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수(10만 명당)를 네트워크 변수로 사용하였다.

도시발전에 있어서 공동체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과 협력은 중요한 요소이고, 이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권태형, 박종화 2010). Oliver(1999)는 도시에서 시민사회 참여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선거 참여율, 선출 공무원과의 교제, 지역사회 모임참여, 자발적 단체활동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2014년에 실시된 지방선거 투표율을 공적참여 변수로 활용하였고, 사적참여 변수로는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를 나타내는 자원봉사자 수(100만 명당)를 이용하였다.

보편적으로 다루어지는 규범, 참여,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적 자본 외에 사회적 자본특성으로 도시의 경쟁력과 관련성이 있는 다양성과 지식활동 변수를 추가하였다(권태형, 박종화 2010). 다양성은 나이, 종교, 성별, 윤리적 배경과 같은 사람들의 개인적 특성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업현장에서 생산성 향상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한국기업교육학회 2010). 게다가 인종구성(Bolster, Propper, Johnston and Sarker et al. 2005), 인구이동 및 구성변화(이숙중, 최준규, 유희정 2008; 김승남, 안건혁, 김재홍 2011) 등은 사회적 자본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도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의 차이가 도시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다양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외국인 인구의 비율을 활용하였다<sup>6)</sup>. 지식활동은 경제적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식기반의 축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시민의 지식활동으로는 인터넷 이용, 공공도서관 이용 등 많은 형태가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도서관 이용 빈도(연간 1인당 이용 빈도)를 활용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의 개별 도시특성으로는 도시의 인구구조적 특성, 산업구조특성, 토지이용특성, 기반시설 특성 등을 살펴보았다. 인구구조적 특성을 알 수 있는 고령자 변수는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사용하였으며, 고령자는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을 기준으로 하였다<sup>7)</sup>. 산업구조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제조업체 변수는 제조업으로 대표되는 2차 산업이 지역 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도시 전체의 산업체수에 대한 제조업체수의 비율을 이용하였다. 토지이용특성으로는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각각의 용도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도시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사용하였다<sup>8)</sup>. 도시기반시설 특징인 문화서비스 변수는 공연장,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지역문화회관, 문화원 등의 문화시설이 얼마나 공급되어 있는지(그 개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도로서비스 변수는 도시 전체의 도로규모를 알 수 있는 도로연장(만 명당)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을 이용하여 사회적 자본과 기초자치단체 경쟁력과의 관계 및 영향 정도, 사회적 자본과 도시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할 때 기초자치단체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6) 통계청의 e-지방지표는 '국제화의 기준으로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를 활용하였음.

7) 「노인복지법」상에서는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경우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8)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변수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해 보았으나, 공업지역(용도지역상 공업지역의 면적 비율) 변수와 녹지지역(용도지역상 녹지지역의 면적 비율)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모델의 설명력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아 본 논문에서는 공업지역과 녹지지역 변수는 제외하였음.

국가통계포털, 각 시·도의 통계연보, 선거관리위원회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2014년 기준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2014년도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연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한 변수의 구성은 <Table 1>과 같다.

일반적으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에서는 공간회귀모형(Spatial Regression Model)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인구규모와 특성 등에 따라 군지역,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등을 대상 지역에서 제외함으로써 공간적 연속성이 유지되지 못하므로 공간회귀모형을 적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사회적 자본 및 도시특성이 기초자치단체(도시)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형태의 회귀모형인 다중회귀모형(Multiple Regression Model)을 활용하였다. 논문에 포함된 상관

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은 SAS 9.4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 2. 기초통계량

도시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 요소와 도시특성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변수의 기초통계량은 <Table 2>와 같다. 분석에는 자료구득, 인구규모 등을 고려하여 145개 기초자치단체의 자료만을 활용하였다. 도시경쟁력 지표로 활용된 기초자치단체의 '1인당 소득세'의 평균은 20만 6,200원이었으며 1인당 소득세가 가장 적은 도시는 3만 7,000원, 1인당 소득세가 가장 많은 도시는 38만 3,000원 수준이었다.

사회적 자본 변수 중에서 공적참여를 나타내는 투표율은 평균이 56.7%이고 최소 투표율은 47.9%, 최

Table 1\_ Variables Definition

Classification		Variables		Variable Definition	Data Source
Dependent Variable		Urban Competitiveness(COM)		Local Income Taxes per Capita (Ten Thousand Won/Person)	Statistical Yearbook
Independent Variable	Social Capital	Participation	Public Participation(P1)	Voting Rates(%) at 2014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Private Participation(P2)	Volunteers per 1,000,000 People	Statistical Yearbook
		Network(NET)		Private Organizations per 100,000 People	Local Governments
		Norms(NOR)		Criminal Offenses per 100,000 People	Statistical Yearbook
		Knowledge Activity(KNO)		Library Visits per People During One Year	Statistical Yearbook
		Diversity(DIV)		The Ratio of Foreigners(%)	Statistical Yearbook
	Urban Characteristic	Population Industry Structure	The Olderly(RO)	The Ratio of Aged Population(%)	Statistical Yearbook
			Manufacturer(RM)	The Ratio of Manufacturing Industry(%)	Statistical Yearbook
		Land Use	Residential Area(GA)	The Ratio of Residential Area(%)	Statistical Yearbook
			Commercial Area(CA)	The Ratio of Commercial Area(%)	Statistical Yearbook
Infrastructure Service		Cultural Service(CS)	Cultural Facilities per 100,000 People	Statistical Yearbook	
		Roadway Length(RL)	Roadway Length per 10,000 People	Statistical Yearbook	

Note: Data for the year 2014 were collected, and the latest year data were used in the absence of data for 2014 year.

Table 2\_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Variables	Variable Definition	N	Mean	S.D	Min	Max
Urban-Competitiveness(COM)	Local Income Taxes per Capita (Ten Thousand Won/Person)	145	206.2	370.0	37	3,893
Public Participation(P1)	Voting Rates(%) at 2014	145	56.7	4.9	47.9	72.0
Private Participation(P2)	Volunteers per 1,000,000 People	145	20.9	8.9	4.9	83.2
Network(NET)	Private Organizations per 100,000 People	145	23.5	22.6	0.0	154.7
Norms(NOR)	Criminal Offenses per 100,000 People	145	33.0	15.5	8.7	114.8
Knowledge Activity(KNO)	Library Visits per People During One Year	145	5.4	4.4	0.2	36.9
Diversity(DIV)	The Ratio of Foreigners(%)	145	2.1	1.7	0.3	9.3
The Olderly(RO)	The Ratio of Aged Population(%)	145	13.1	4.4	6.0	27.6
Manufacturer(RM)	The Ratio of Manufacturing Industry(%)	145	10.2	6.9	2.2	41.1
Residential Area(GA)	The Ratio of Residential Area(%)	145	21.7	21.9	0.4	94.1
Commercial Area(CA)	The Ratio of Commercial Area(%)	145	3.0	5.6	0	44.2
Cultural Service(CS)	Cultural Facilities per 100,000 People	145	7.8	12.2	0.7	109.4
Roadway Length(RL)	Roadway Length per 10,000 People	145	21.7	20.8	2.9	108.2

대 투표율은 72.0%였다. 사적참여를 나타내는 자원봉사 활동의 평균은 100만 명당 20.9명 수준이었으며, 자원봉사 활동이 최소인 도시는 100만 명당 4.9명, 최대인 도시는 100만 명당 83.2명 수준으로 지역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네트워크 변수인 10만 명당 비영리단체수는 평균이 23.5개소였다. 비영리단체가 하나도 없는 도시도 있었으며, 비영리단체가 제일 많은 도시는 10만 명당 154.7개소를 가지고 있었다. 규범 변수에 관한 지표인 10만 명당 범죄발생건수는 평균이 33.0건이었으며, 범죄가 가장 적게 발생하는 도시에서는 10만 명당 8.7건,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도시에서는 10만 명당 114.8건이 발생하였다. 지식활동 변수인 도서관 이용 빈도는 1년 동안 한 사람이 평균 5.4회 정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용 빈도가 가장 적은 도시에서는 1년 동안 0.2회/인

이용 빈도가 가장 많은 도시에서는 1년 동안 36.9회/인 수준으로 이용하였다. 다양성 변수인 외국인 비율은 평균적으로 전체 도시인구의 2.1%를 차지하였으며, 외국인 비율의 최솟값과 최댓값은 각각 0.3%, 9.3%였다.

기초자치단체의 도시특성 요소를 살펴보면, 인구 구조를 알 수 있는 고령자 변수의 평균은 13.1%로 대부분의 도시가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sup>9)</sup>.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도시의 고령자 비율은 6.0%였다.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의 고령자 비율은 27.6%나 되었으며, 이는 인구 4명 중에서 1명 이상이 고령자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산업구조특성을 알 수 있는 제조업체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평균은 10.2%였다.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도시와 가장 높은 도

9) 총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함.

시의 제조업체 비율은 각각 2.2%, 41.1%였다. 이는 우리나라 도시의 경우 제조업이 도시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가 있는 반면, 제조업이 도시산업과 크게 관련이 없는 도시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도시의 토지이용과 관련된 변수들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이 21.7%, 도시 내 주거지역 비율이 가장 낮은 도시는 0.4%, 가장 높은 도시는 94.1%나 되었다. 또, 도시지역에서 상업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의 평균은 3.0%이고, 도시 내에 상업지역이 전혀 분포하지 않는 곳도 있었으며, 상업지역의 비율이 제일 높은 곳은 전체 면적의 44.2%나 되었다.

도시기반시설 서비스와 관련된 문화서비스 변수의 평균은 7.8개소였고, 최소 도시는 0.7개소, 최대 도시는 109.4개소의 문화서비스 공간을 가지고 있었다. 도시 내 도로연장의 평균은 21.7km이고, 도로연장이 최소인 지역과 최대인 지역은 각각 2.9km와 108.2km로 나타나 도시기반시설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 IV. 사회적 자본 및 도시특성과 기초자치단체 경쟁력과의 관계 분석

##### 1. 사회적 자본 및 도시특성과 기초자치단체 경쟁력 간의 상관관계 분석

참여, 규범, 네트워크, 지식활동, 다양성 등의 사회적 자본 변수와 인구·산업구조, 토지이용, 기반시설 서비스와 관련된 도시특성 변수들과 기초자치단체 경쟁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분석에 따르면 네트워크, 지식활동, 다양성과 같은 사회적 자본특성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쟁력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네트워크가 많을수

**Table 3\_ The Result of Correlation between Social Capital and Urban Characteristics and Competitiveness of Local Government**

Variables	Correlation Coefficient	Prob>  r
Public Participation(P1)	0.011	0.8951
Private Participation(P2)	0.072	0.3921
Network(NET)	0.424	<.0001***
Norms(NOR)	0.026	0.7527
Knowledge Activity(KNO)	0.672	<.0001***
Diversity(DIV)	0.346	<.0001***
The Elderly(RO)	-0.069	0.4096
Manufacturer(RM)	0.005	0.9495
Residential Area(GA)	0.175	0.0352**
Commercial Area(CA)	0.564	<.0001***
Cultural Service(CS)	0.482	<.0001***
Roadway Length(RL)	-0.085	0.3089

Not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N=145.  
\*P<0.1, \*\*P<0.05, \*\*\*P<0.01.

록, 지식활동이 증가할수록, 다양성이 높을수록 도시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도시특성 변수 중에서는 주거지역 변수, 상업지역 변수, 문화서비스 변수가 기초자치단체의 경쟁력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도시 내 주거지역의 비율이 높을수록, 상업지역의 비율이 높을수록, 문화서비스 시설이 많을수록 도시경쟁력이 좋아진다는 뜻이다. 기초자치단체의 도시경쟁력과의 상관성은 지식활동 변수가 가장 강하였으며 다음으로 상업지역 변수와 문화서비스 변수 순이었다. 각각의 변수에 대한 상관계수 값은 0.672, 0.564, 0.482였다. 이를 통해서 기초자치단체의 도시경쟁력에 사회적 자본 변수와 도시특성 변수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 자본 및 도시특성이 기초자치단체의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 2. 사회적 자본이 기초자치단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기초자치단체의 경쟁력에 대한 사회적 자본 변수의 영향력만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사회적 자본 변수 중에서 참여(공적참여, 사적참여), 네트워크, 규범 변수만을 고려한 'Model 1'의 설명력은 19.3%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자본이 기초자치단체의 경쟁력에 미약하지만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Model 1'에서는 네트워크 변수와 규범 변수가 기초자치단체의 경쟁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네트워크가 증가할수록(10만 명당 비영리단체수의 증가) 기초자치단체의 경쟁력이 높아졌는데 이는 수평적 단체 참여가 경제성장, 정부성과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Putnam 1993; 박희봉, 이희창 2010)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규범이 잘 지켜질수록(10만 명당 범죄발생건수가 적을수록) 기초자치단체의 경쟁력이 향상되었는데 이는 도시안전의 확보가 도시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임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공적참여와 사적참여 변수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쟁력에 유의미한 영향

을 주지 않았다.

'Model 2'는 'Model 1'에 지식활동과 다양성 변수를 추가한 것으로 'Model 2'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자본 변수들의 설명력은 51.4%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지식활동'과 '다양성'이 기초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설명하는 데 있어 다른 사회적 자본 변수보다 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Model 2'에서는 네트워크와 지식활동, 다양성 변수가 기초자치단체의 경쟁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트워크가 증가할수록, 지식활동이 활발할수록(도서관 이용 빈도가 많아질수록), 다양성 지표가 높을수록(지역 내 외국인비율이 높을수록) 기초자치단체의 경쟁력이 강화되었다. 개별 변수의 영향력은 표준화계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사회적 자본 변수 중에서는 지식활동 변수가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였다. 이는 법질서, 신뢰, 지식기반환경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자본이 국부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세계은행보고서(송태수 2011, 재인용)와 경제활동의 추세가 점차 지식기반경제로 옮겨가고 있으며 지식의 유포, 지식기반환경이 경제적 성과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Casey 2004; Coffe and

Table 4 \_Regression of Urban Competitiveness by Social Capital Characteristics

Variables	Model 1 <sup>1)</sup>				Model 2 <sup>2)</sup>			
	Standardized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VIF	Standardized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VIF
Intercept	0.000*	352.896	1.88	0.00	0.000	290.313	0.16	0.00
Public Participation(P1)	-0.112	6.096	-1.38	1.17	-0.032	4.845	-0.50	1.23
Private Participation(P2)	-0.048	3.387	-0.59	1.19	-0.088	2.670	-1.37	1.23
Network(NET)	0.530***	1.419	6.11	1.34	0.204***	1.258	2.66	1.74
Norms(NOR)	-0.181**	2.010	-2.14	1.27	-0.080	1.581	-1.21	1.30
Knowledge Activity(KNO)					0.561***	5.913	7.93	1.48
Diversity(DIV)					0.228***	13.492	3.68	1.14

Note: \*P<0.1, \*\*P<0.05, \*\*\*P<0.01

1) P-Value<0.0001, R-Square: 0.2149, Adj R-Square: 0.1925

2) P-Value<0.0001, R-Square: 0.5339, Adj R-Square: 0.5137

Geys 2005; 권태형, 박종화 2010)들과 유사한 결과이다. 지식활동 변수 다음으로 다양성 변수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확립, 글로벌 사회와의 융화 등이 도시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요인(최은수 2010)으로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공적참여, 사적참여 변수, 규범 변수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쟁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사회적 자본 및 도시특성이 기초자치단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기초자치단체의 도시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자본과 도시특성 요소를 동시에 고려한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으며, 'Model 3'의 설명력은 63.8%였다. 'Model 3'에서 사회적 자본 변수 중 사적참여, 규범, 지식활동, 다양성 변수가 기초자치단체의 경쟁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사적참여(자원봉사)가 정부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 연구도 있었지만(Knack 2002), 본 논문에서는 사적참여가 활발할수록(100만 명당 자원봉사자의 수가 많을수록) 지역의 생산성 지표로 파악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쟁력이 낮게 나타났다. 자원봉사자<sup>10)</sup>는 대체로 사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생산활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규모가 커지는 것이 도시의 경제적 생산성과 관련 깊은 경쟁력 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규범이 잘 지켜질수록(10만 명당 범죄발생건수가 적을수록) 기초자치단체의 경쟁력이 높아졌는데 이는 법질서가 잘 지켜질수록 국민소득과 경제성장률이 높

**Table 5** \_Regression of Urban Competitiveness by Social Capital and Urban Characteristics

Variables	Model 3			
	Standardized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VIF
Intercept	0.000	354.020	1.14	0.00
Public Participation(P1)	-0.008	6.570	-0.09	2.78
Private Participation(P2)	-0.131**	2.541	-2.14	1.37
Network(NET)	0.135	1.600	1.38	3.48
Norms(NOR)	-0.206***	1.670	-2.94	1.79
Knowledge Activity(KNO)	0.442***	6.483	5.69	2.20
Diversity(DIV)	0.227***	14.426	3.43	1.60
The Olderly(RO)	-0.273***	6.847	-3.33	2.46
Manufacturer(RM)	-0.134*	3.711	-1.95	1.73
Residential Area(GA)	-0.145*	1.319	-1.85	2.23
Commercial Area(CA)	0.438***	5.861	4.91	2.89
Cultural Service(CS)	0.004	2.974	0.04	3.49
Roadway Length(RL)	0.247**	1.749	2.51	3.52

Note: \*P<0.1, \*\*P<0.05, \*\*\*P<0.01

P-Value<0.0001, R-Square: 0.6052, Adj R-Square: 0.6381

아진다는(차문중 2007)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지식활동이 활발할수록(도서관 이용 빈도가 많아질수록) 기초자치단체의 경쟁력이 높아졌으며, 다양성 지표가 높을수록(지역 내 외국인비율이 높을수록) 기초자치단체의 경쟁력이 강화되었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급속하게 변화하는 지식기반환경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는 것이 경쟁력 확보에 있어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적 자본 변수 중에서는 지식활동과 다양성 변수의 표준화계수가 사적참여(-0.131)나 규범(-0.206) 변수에 비해 큰 값인 0.442, 0.227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식활동과 다

10) '사회복지학사전'에서 자원봉사자는 개인의 자유의사로 보통 재정적인 보상 없이 봉사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양성 변수의 변동이 기초자치단체의 경쟁력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의미이다. 반면, 사회적 자본만을 고려한 'Model 1'과 'Model 2'에서 유의미했던 네트워크 변수가 'Model 3'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쟁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Model 3'의 도시특성 변수 중에서 고령자, 제조업체, 주거지역 변수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쟁력에 부(-)의 영향을 주었다. 도시에서 고령자 비율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비율이 줄어들어 도시의 경제 성장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내기가 어려워지므로 고령자 비율이 증가할수록 도시경쟁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또한 제조업은 국내에서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산업으로 제조업이 빠져나간 곳에는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전기·운수·통신·금융 등)이 들어오게 되어 이들 산업이 도시의 성장·발전도 주도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도시산업에서 제조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질수록 다른 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생산성으로 측정된 도시경쟁력이 향상되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도시 토지이용에 있어서 주거지역의 증가는 도시인구 증가에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주거지역으로 들어온 모든 인구가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에서 주거지역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도시의 생산성은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도시특성 변수 중에서 상업지역, 도로 변수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쟁력에 유의미한 양(+ )의 영향을 주었다. 도시 토지이용에 있어서 상업지역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도로연장이 길어질수록 기초자치단체의 경쟁력이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서 도시에서 상업·업무활동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도시 기반시설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의 경쟁력 향상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표준화계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도시특성 변수들의 영향력은 상업지역 변수가 0.438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고령자 변수(-0.273), 도로 변수(0.247) 순이었다.

## V. 결론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자본이 도시의 성장·발전뿐 아니라 도시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도시경쟁력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도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단순히 사회적 자본 특성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도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리적·사회적 특성들도 함께 고려하여 기초자치단체(도시) 경쟁력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적 자본만을 고려하여 기초자치단체(도시) 경쟁력과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사회적 자본 변수들이 지역의 생산성 수준을 나타내는 도시경쟁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자본 요소인 네트워크가 잘 갖추어져 있거나, 규범이 잘 지켜질 경우 도시경쟁력이 높아졌으며, 특히 다양성과 지식활동과 관련된 지표가 도시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적 자본 및 도시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기초자치단체(도시) 경쟁력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도시의 구성요소에 해당하며 사회적 자본 변수에 비해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도시특성 변수들이 생산성과 관련된 도시경쟁력에 대한 설명력을 높였으며,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크게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과 도시특성을 모두 고려할 경우 사회적 자본 변수 중에서 지식활동, 다양성, 규범과

사적참여 변수가 도시경쟁력에 있어 중요한 요소였으며, 도시특성 변수 중에서는 상업지역 면적, 고령자 비율, 도로연장, 주거지역 면적, 제조업체 비율 등이 도시경쟁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연구를 통해 사회적 자본의 확충(네트워크 활동 활성화, 지식활동 지원 등)과 도시적 특성 강화(젊은 층 인구의 유입, 상업지역 확대, 도시기반시설 공급 등)를 통해 도시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에 기초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도시발전, 도시재생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2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젊은 층 인구의 유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젊은 층이 도시로 유입되면 자연스럽게 생산 및 경제활동에 투입될 것이며, 다양한 형태의 지식활동이나 네트워크 활동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둘째는 상업지역의 확대와 적절한 기반시설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는 공간과 시설의 공급을 통해서 상업기능을 강화하고 활성화하는 것으로 도시공간계획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도시재생 및 발전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기초자치단체(도시)를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도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적 자본뿐 아니라 도시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공기관을 통한 자료들이 대부분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고, 개별 자치단체에 따라 데이터의 양식과 종류에 차이가 있어 폭넓은 자료를 활용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사회적 자본과 도시경쟁력을 나타내는 다양한 형태의 지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문별로 일부 변수만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추후의 연구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자료(사회적 자본 등) 구축을 통해 커뮤니티 강화, 도시재생 및 발전, 도시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 참고문헌 •••••

- 고경훈, 안경훈, 김건위. 201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자본 측정 및 증진방안.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Go Kyounghoon, Ahn Kyounghooh and Kim Gunwi. 2012. *Measuring and Enhancing Ways of Social Capital in Local Government*. Seoul: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권창기, 정현욱, 박선형. 2008. 우리나라 도시경쟁력 평가 연구. 국토연구 58권: 21-38.  
Kwon Changgi, Jung Hyunwook and Park Sunhyoung. 2008. A study on the evaluation on Korean city's competitiveness.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58: 21-38.
- 권태형, 박종화. 2010. 사회적 자본이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분석. 지방정부연구 14권, 3호: 97-116.  
Kwon Taehyoung and Park Jonghwa. 2010. The impact analysis of social capital on urban competitiveness. *The Korea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14, no.3: 97-116.
- 김승남, 안건혁, 김재홍. 2011. 택지개발이 지역주민의 사회 자본에 미치는 영향: 근린수준 사회자본과 일반적 사회자본에 대한 차이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71권: 47-68.  
Kim Seoungnam, Ahn Kunhyuk and Kim Jaehoong. 2011. The effect of residential site development on residents social capital: A comparison between neighborhood social capital and general social capital.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71: 47-68.
- 김원배, 안형도, 박세훈, 정옥주, 이성수. 2007. 동북아 대도시 권 동태적 경쟁력의 비교연구.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m Wonbae, Ahn Hyungdo, Park Sehoon, Jung Okyu and Lee Sungsoo. 2007. *Comparative Study on Dynamic Competitiveness of Major Cities in Northeast Asia*. Seoul: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김정호. 2008. 도시경쟁력. 한국정부학회지 20권, 1호: 8-9.  
Kim Jungho. 2008. Urban competitiveness. *Korean Association of Governmental Studies* 20, no.1: 8-9.
- 박영강, 윤은기, 이희태, 초의수, 이수구. 2014. 지방정부의 사회적 자본 측정현황과 시사점: 해운대구 주민설문조사를

-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0권, 1호: 207-233.
- Park Youngkang, Yun Engi, Lee Heitae, Cho Eisu and Lee Sugu. 2014. The implications and measurements of social capital in local government: Focused on questionnaire surveys from citizens of Haeundae district in Busan Metropolitan City.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30, no.1: 207-233.
8. 박희봉. 2002. 사회자본과 지방정부 경쟁력. 정부행정 3호: 1-28.
- Park Heibong. 2002. Social capital and local government competitiveness. *Journal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no.3: 1-28.
9. 박희봉, 이희창. 2010. 사회자본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한·중·일 3국민의 시민의식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4권, 4호: 1-29.
- Park Heibong and Lee Heichang. 2010. Social capital's impact on national competitiveness: Focused on citizen's perception of Korean, Chinese and Japanese. *Korean Policy Sciences* 14, no.4: 1-29.
10. 송태수. 2011. 도시경쟁력으로서의 사회적 자본. 도시문제 46권, 513호: 29-32.
- Song Taesu. 2001. Social capital as city competitiveness. *Urban Affairs* 46, no.513: 29-32.
11. 우천식, 김태중. 2007. 한국경제·사회와 사회적 자본.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Woo Chunsik and Kim Taejong. 2007. *Korea Economy/Society and Social Capital*. Seoul: Koran Development Institute.
12. 윤두섭, 오승은. 2007. 사회적 자본이 지방정부 외부역량에 미치는 영향: 성남시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5권, 1호: 165-192.
- Yun Duseb and Oh Seouneun. 2007. An empirical analysis on social capital and local capacity: Focused on Seongnam city.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45, no.1: 165-192.
13. 이동원, 정감영, 채승병, 박준, 한준. 2009. 제3의 자본.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Lee Dongwon, Jung Gabyoung, Che Seungbyeong, Park Jun and Han Jun. 2009. *The Third Capital*. Seoul: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14. 이숙중, 최준규, 유희정. 2008. 사회적 특성과 행위 변수가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종로구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 연구 22권, 4호: 101-132.
- Lee Sookjung, Choi Junkyu and Yu Hijeong. 2008. Influence of social characteristics and behaviors of urban residents upon their social capital: The case of Jongno-gu.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22, no.4: 101-132.
15. 이창현, 김경수, 김울성, 박상필. 2013. 지표로 본 부산의 도시경쟁력 평가. 부산: 부산발전연구원.
- Lee Changhun, Kim Kyoungsu, Kim Yulseong and Park Sangpil. *Urban Competitiveness Assessment of Busan as an Indicator*. Busan: Busan Development Institute.
16. 임병우, 이재우. 2008. 전문가 설문예 기초한 도시경쟁력의 모의적 평가. 국토계획 43권, 3호: 55-69.
- Lim Byungho and Lee Jaewoo. A simulated evaluation on city's competitiveness through survey with experts. *Korea Planners Association* 43, no.3: 55-69.
17. 정광호. 2010. 사회자본과 지방정부 역량의 연관성 탐색: 재정역량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권, 4호: 333-374.
- Jung Kwangho. 2010. Exploring the link between social capital and the fiscal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Korea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Studies* 20, no.4: 333-374.
18. 조동성, 임민영. 2009. IPS 도시경쟁력 평가 모델과 한국 도시의 경쟁력 평가 결과, 그리고 춘천시의 경쟁력 향상 전략. 여가학연구 6권, 3호: 39-56.
- Cho Dongsung and Im Minyoung. 2009. Application of IPS model of city competitiveness to Korean cities, and strategies to enhance Chuncheon city's competitiveness. *Journal of Leisure Studies* 6, no.3: 39-56.
19. 차문중. 2007. 법질서의 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KDI정책포럼 173호: 1-12.
- Cha Moonjoong. 2007. The effect of compliance with the law on economic growth. *Policy Forum of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73: 1-12.
20. 최은수. 2010. 도시경쟁력 결정요인에 대한 탐색적 사례연구.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1-20.
- Choi Eunsu. 2010. An exploratory case study on the determinant factors of city competitiveness. *Study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1-20.
21. 한국기업교육학회. 2010. HRD 용어사전. 서울: 중앙경제 한국사회의학회. 2010. *HRD Dictionary*. Seoul: Joongang Economy.
22. Beugelsdijk, S. and Van Schaik, T. 2005. Differences in social capital between 54 western European regions. *Regional*

- Studies* 39, no.8: 1053-1064.
23. Bolster, A., Propper, C., Johnston, R., Sarker, R., Jones, K. and Burgess, S. 2005. Neighbourhood social capital and neighbourhood effects. *Environment and Planning A* 37, no.8: 1443-1459.
  24. Bramley, G. and Power, S. 2009. Urban form and social sustainability: The role of density and housing type. *Environment and Planning B: Planning and Design* 36, no.1: 30-48.
  25. Casey, T. 2004. Social capital and regional economies in Britain. *Political Studies* 52, no.1: 96-117.
  26. Castiglione, D., Van Deth, J. W. and Wolleb, G. eds. 2008. *The Handbook of Social Capita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7. Coffe, H. and Geys, B. 2005. Institutional performance and social capital: An application to the local government level. *Journal of Urban Affairs* 27, no.5: 485-501.
  28. Coleman, J.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ssachusetts: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9.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Paperbacks.
  30. Hanifan, L. J. 1916. The rural school community center.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7: 130-138.
  31. Kitson, M., Martin, R. and Tyler, P. 2004. Regional competitiveness: An elusive yet key concept? *Regional Studies* 38, no.9: 991-999.
  32. Knack, S. 2002. Social capital and the quality of government: Evidence from the stat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6, no.4: 772-785.
  33. Knack, S. and Keefer, P. 1997. 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off? A cross country investiga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2, no.4: 1251-1288.
  34. Malecki, E. J. 2002. Hard and soft networks for urban competitiveness. *Urban Studies* 39, no.5-6: 929-945.
  35. Oliver, J. E. 1999. The effect of metropolitan economic segregation on local civic participation. *Th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3: 186-212.
  36. Olson, M. 1982.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Economic growth, stagflation, and social rigidit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37. Putnam, R. D.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4, no.13: 35-42.
  38. \_\_\_\_\_.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39. Rogerson, R. J. 1999. Quality of life and city competitiveness. *Urban Studies* 36, no.5-6: 969-985.
  40. Ross, C. E. and Mirowsky, J. 1999. Disorder and decay: The concept and measurement of perceived neighborhood disorder. *Urban Affairs Review* 34, no.3: 412-432.
  41. Tocqueville, A. 2003. *Democracy in America*. Washington, D.C.: Regnery Publishing.
  42. Van Deth, J. W., Castiglione, D. and Wolleb, G. 2008. *The Handbook of Social Capita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43. Woolcock, M. 1998.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27, no.2: 151-208.
- 
- 논문 접수일: 2017. 12. 28.
  - 심사 시작일: 2018. 1. 23.
  - 심사 완료일: 2018. 3. 2.

---

## 요약

주제어: 사회적 자본, 도시특성, 기초자치단체 경쟁력, 다중회귀모형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생산성, 경쟁력, 도시재생 등과 관련성이 높은 사회적 자본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도시공간에 형성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자본 및 도시특성과 도시경쟁력과의 상관성을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도시)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사회적 자본만을 고려한 경우에는 지식활동, 다양성 변수가 기초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영향을 주었으며, 사회적 자본과 도시특성을 모두 고려한 경우에는 사적참여, 규범, 지식활동, 다

양성의 사회적 자본 변수와 고령자비율, 제조업체 비율, 주거지역 면적, 상업지역 면적, 도로연장과 같은 도시특성 변수가 기초자치단체의 경쟁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연구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사회적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도시적 특성을 강화할 수 있는 도시계획 및 개발 등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사회적 자본 자료가 구축된다면, 커뮤니티 강화, 도시재생 및 발전, 도시경쟁력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